

해외출장
보고서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이탈리아 역사지구, 문화유산 보전·활용 관련 기관방문 및 인터뷰

2024.6.11 - 6.21.
이탈리아 로마·피렌체·볼로냐

심경미 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a u r ;) 건축공간연구원

차 례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 출장개요	1
2. 출장목적 및 주요 조사내용	1
3. 세부 일정	2
II. 관계기관 방문 및 인터뷰	3
1. 로마 유적 보존 활용 사례 전문가 자문	3
2.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OM)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I	5
3.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OM)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II	7
4.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8
5. 불로냐 시청-도시혁신재단 Rock 프로젝트 관련 면담	10
III. 사례지 조사	12
1.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Museo della Forma Urbis)	12
2.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o Massimo)	13
3. 콜로세움 고고학공원	14
4. 산지미나노 역사지구	15
5. 피렌체 역사지구(Duomo di Firenze) 및 도시전시	16
6.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산 조반니 세례당(Battisteri di san Giovanni)	17
7.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 (Museo dell'Opera del Duomo)	18
8. 피렌체 그린웨이(Firenze Greenway) : 보볼리 정원	19
9. 구 수녀원(Vecchio Conventino)의 창작 사무소(Officina Creativa)	21
10. 트레 레 광장(PIAZZA TRE RE)	22
11. 오블레이트 도서관(Biblioteca delle Oblate)	23
12. 로시니 광장(Piazza Rossini)	24
13. 살라보르사 도서관(Biblioteca Salaborsa)	24
IV. 출장 효과 및 시사점	26
V. 취득자료	27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출장개요

- 과 제 명 :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 출장기간 : 2024년 6월 11일(화) ~ 6월 21일(금) / 9박 11일
- 출장지역 : 이탈리아 로마·피렌체·볼로냐
- 출 장 자 : 심경미 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2. 출장목적 및 주요 조사내용

□ 출장목적 : 이탈리아 역사지구, 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기관방문 및 인터뷰

- 본 과제는 부여 고도지구 지정 및 고도 보존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문화유산(특히 유적) 관리 및 활용 방안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유산 관리 및 보존,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로마, 피렌체 등의 역사지구 관리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와 유적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유적 보존·관리 및 건축유산 홍보 및 협력 측면에서의 관계자 면담과 활용 사례 등을 통해 부여 고도지구 내 지역주민 보존육성사업 발굴과 활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조사내용

- 이탈리아 역사지구 특성 및 보존관리 체계
- 이탈리아 유적공간 전시 및 유적 활용 사례
-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화유산 활용 방식 및 활성화 사례

3. 세부 일정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기타
6월 11일 (화)	13:20 19:30	인천	로마	인천 출발, 로마 도착	
6월 12일 (수)	10:00 13:00	로마		[사례조사] 유적공간 전시 사례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Museo della Forma Urbis)	* 면담일정 변경
	15:00 18:00			[사례조사] 유적공간 VR활용 사례 Circo Massimo(키르쿠스 막시무스)	
6월 13일 (목)	10:00 12:00	로마		유적 보전 활용 사례 전문가 자문 : Stadio di Domiziano(도미티아누스 경기장)	* 일정변경 면담추가
	14:00 16:00			ICCROM 기관 방문 및 면담 I (유적 보존 및 복원, 관리 등)	* 면담추가
	16:00 18:00			ICCROM 기관 방문 및 면담 II (건축유산 협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	
6월 14일 (금)	09:00 16:00	로마		[사례조사] 유적공간 조성 및 재현사례 : 콜로세움 고고학공원(콜로세움, 포로로마노)	
	16:00 21:00	로마	피렌체	이동	
6월 15일 (토)	10:00 18:00	피렌체 ↔ 산지미냐노		이동	
				[사례조사] 산지미냐노(산지미냐노 역사 지구)	
				이동	
6월 16일 (일)	09:00 18:00	피렌체		[사례조사] 피렌체 역사지구 및 도시 전시	
				[사례조사] 산 조반니 세례당(Battisteri di san Giovanni)	
				[사례조사] 유적 활용 전시 사례: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	*사례추가
6월 17일 (월)	10:00 13:00	피렌체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 면담 (피렌체 역사지구 관리계획 및 공공영역 개선 사례)	
	14:00 18:00			[사례조사] 플로렌스 그린웨이 프로젝트	
				[사례조사] 구 수녀원(Vecchio Conventino)의 창작 사무소(Officina Creativa)	
6월 18일 (화)	09:00 16:00	피렌체		[사례조사] TRE RE 광장 개선 프로젝트	
			[사례조사] 오블레이트 도서관(Biblioteca delle Oblate)		
	16:00 20:00	피렌체	볼로냐	이동	
6월 19일 (수)	09:00 14:00	볼로냐		[사례조사] 로시니 광장(Rock 프로젝트 실현 사례)	
	15:00 18:00			[사례조사] 유적공간 활용 사례 : 살라보르사 도서관	*사례추가
				볼로냐 시청 및 도시혁신재단 방문 및 면담	
6월 20일 (목)	09:00 15:00	볼로냐	밀라노	이동	
	17:20	밀라노		밀라노 공항(LIN) 출발	
6월 21일 (금)	16:40		인천	인천공항 도착	

* 로마시청 면담일정 변경으로 유적보전활용 (현지) 전문가 자문 추가 대체함

* 기관방문 면담 및 전문가 자문: 기존 총 4회 → 총 5회 변경

* 사례지 조사 일정: 기존 총 11곳 → 총 13곳 변경

II. 관계기관 방문 및 인터뷰

1. 로마 유적 보존 활용 사례 전문가 자문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0:00~12:00
- 장 소 : 도미티아누스 경기장
- 참석자 : 전순섭 (로마대 도시공학 전공), 심경미 연구위원·방보람 연구원(AURI)
- 내 용 : 도미티아누스 경기장 등 유적 공간과 건물 활용 사례

□ 로마 역사지구 내 규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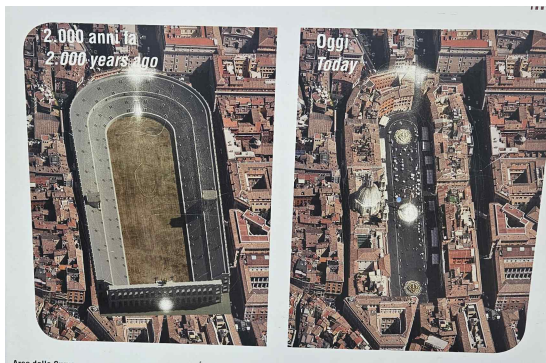
- 1939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중앙정부 문화환경재부 시행)에는 국가의 경승지역 13개소를 지정하여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환경도 함께 관리하는 계획하고, 1967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 도시마스터플랜에서 ‘역사도심지구’를 지정, 넓은 지역을 면적으로 보존하는 제도가 확립되었고, 각 지자체에서 역사도심(Centro Historico)의 지정을 법적으로 시행함. 이에 따라, 역사도심지구 내 건물 공사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 로마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1974년에 채택되고, 1979년 주정부로부터 승인된 도시마스터플랜에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수복·재생을 위한 A zone(역사도심지구)와 기존의 건축양식과 건축규모를 중요하게 관리하는 B zone(준역사도심지구), 주요 유적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G/N Zone(녹지지구(민간/공공))을 폭넓게 지정하여 운영함.
- 규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물 형태는 도시마스터플랜에서 층수 등을 규제하고 있고, 건축 등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제로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음. 또한, 건축물군의 형태 보존을 위해서 건축공사 수복공사 지도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고, 간판 및 광고물의 규제는 도시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음

□ 대표적 유적 활용 사례: 도미티아누스 경기장

- 1936년 스타디움 관람석 부분의 주택 대신 보험회사 건물을 지으려다가 발굴된 유적에 대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기업이 보존,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 도미티아누스 경기장은 서기 85~86년 사이에 Campus Martius에 건설된 여성전용의 석조 육상경기장으로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이후 스타디움의 관람석 부분에 주택이 건설되고 경기장 부분은 현재 나보나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1936년 스타디움 부분에 국립 보험회사 건물을 지으려다가 유적이 발굴되어, 1990년대 후반 해당 유적의 활용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현상공모를 함
 - 로마 수도 문화유산 감독관은 나보나 광장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경기장 고고학 지역의 복구 및 가치 평가를 입찰의 승자인 회계소프트웨어 관리 회사인 MKT121 srl(Marconet Group)에게 공식적으로 맡김

- 도미타우누스 경기장 유적을 전시하고, 전시관, 회의공간, 패션쇼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나보나 광장(Piazza Navona), 토르 상기냐 광장(Piazza di Tor Sanguigna) 사이에 위치하여 해당 공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설명패널과 비디오를 통해 로마 경기장 및 스포츠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음
 - 2014년부터 대중에 공개되었고, 유적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전시회, 콘서트, 패션쇼, 컨퍼런스 등의 장소로 활용하기도 함

□ 현장 사진



2000여년전 육상경기장이었으나, 현재는 스타디움이
나보나광장으로 활용중



건물 외관에서도 해당 유적의 존재와 설명을 볼 수 있음



유적 공간 전시



미술작품 및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활용



[로마 유적 보전 활용 인터뷰]

2.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ROM)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I

- 일 시 : 2024년 6월 13일(수) 14:00~16:00
- 장 소 : 이크롬(ICRROM) 본사
- 참석자 : Rohit Jigyasu (ICRROM), Eugene Jo(통역), 심경미 연구위원·방보람 연구원(AURI)
- 내 용 : 건축유산의 지속성, 도심유산 재해예방 등 보전 방식에 대한 자문

□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ROM) 기관 개요

-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분야의 정부간 협력을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로마에 설립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국제자문기구로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과 모니터링, 훈련, 역량구축 활동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
- 교육과정(고고학 유적지 및 유물의 보존 및 관리, 소장품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재/석재 보존 기술 국제 강좌 등), 세계유산리더십(WHL)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및 건축유산 프로그램,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축유산 지속 5가지 접근 방식

- 건축유산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Holistic, Sustainable, Resilient, Urban, Hertiage 등 5가지의 접근방식
 - 전체적인(Holistic)은 건축유산, 매장유산, 무형요소들, 경관요소들, 가치수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건축유산 대상을 확대하는 포용적 부분을 강조함
 - 지속가능한(Sustainable)은 유산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수 있는지(관광 포함), 관광객을 늘리는데만 있는게 아니라,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음
 - 회복력있는(Resilient)는 지진, 홍수 등 재해 예방 차원의 방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 유산 지역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음
 - 도시(Urban)는 도시유산을 도시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접근하여, 주변환경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음
 - 유산(Heritage)은 유산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하고 연관시킬지 집중하고 있음

□ Heritage for Urban Development(HUD)

-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예방, 기후대응을 위해, 건축유산과 수반해서 모든 종류 유산을 한꺼번에 보고 지역특수성(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제적인 것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중임
- 여태까지 고려했던 접근 방식과 기본 사항을 접목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을 구축하고자 함
- 규모에 따라서는 개발압력이 큰 메가시티(Mega city)와 인구가 줄어들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도시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특수성(유럽, 아시아)과 국제적인 것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예방, 기후 대응을 위해, 건축유산과 수반해서 모든 종류 유산을 한꺼번에 보고 추진하고자 함
- 여태까지 고려했던 접근 방식과 기본 사항을 접목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을 구축하고자 함
- 규모에 따라서는 개발압력이 큰 메가시티(Mega city)와 인구가 줄어들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중소도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사례연구와 지자체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례연구는 개발계획 수립·운영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방식과 이행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함께 배워나가는 사업이고, 지자체 역량강화는 지자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아시아의 경우, 사례구축 워크숍과 Seamo-Spafa 협력 사례조사, 중국 통지대학교 디지털 도심유산 활용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례구축 워크숍은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의 역사도시를 중점으로 3년간 각각 사례를 합해서 분석하고 공동 사례집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Seamo-spafa는 태국 동남아시아 교육관광 연계기구(9개국)로 유산 분야를 맡고 있는 태국 송카와 협력하여, 역사도시 보전활용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함. 디지털 도심유산 활용 방안의 경우, 중국 통지대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내 디지털화된 유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AI를 잘 활용하여 향후 도시 개발에 반영하고 접목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찾는 중임

□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에 대한 관련 사항

- 지자체 역량강화 측면에서 기존의 잘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집중되는 시스템의 개선이 어렵지만, 동, 마을단위의 작은 사업을 만들어 민간기구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함
- 부여와 같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오랜 신뢰관계가 구축된 기관이나 지역단체가 지역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풀뿌리 단체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함
- 지역 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주로 관광에 집중을 하는데, 관광은 발전할수록 부정적 영향이 있고, 중간매개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접 관광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가져갈수 있는 수익매체와 젊은 층의 스타트업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함
- 작은 사례더라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배우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봄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M) 기관 협의 1]

3.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ROM)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II

- 일 시 : 2024년 6월 13일(수) 16:00~18:00
- 장 소 : 이크롬(ICRROM) 본사
- 참석자 : Eugene Jo (ICRROM), 심경미 연구위원·방보람 연구원(AURI)
- 내 용 : 세계유산리더십(WHL) 프로그램 및 유산보전을 위한 기관 역할에 관한 자문

□ 세계유산 리더십(WHL) 프로그램

-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은 자연유산-문화유산을 기본적으로 공통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집중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유산의 가치속성을 무형, 유형 구분이 어려운데, 전통지식, 특정경관 속 농업유지 프로세스 등의 다양한 가치가 해당 유산의 가치속성이 될 수 있음
- 세계유산 리더십은 문화적 활용과 자연문화 연계방식에 대한 내용구축과, 실행가능하기 위한 세분화, 실행방식 및 주체 역할 등에 대해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됨
- 유산관리, 보전에 대해서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조직과 운영 예산 및 관리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고 연구하고 있음
 - 국가 단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안하고 정책 구축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와 참여 방안은 참여방식(정보 공유, 의사결정) 등의 절차에서 결정된다고 보며, 수립, 운영, 관리 등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리기관 단위에서 이슈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효율적인 유산관리를 위해서는 유산 말고도 정비계획 등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유산과 다르게 제각각 다른 법률과 다양한 범위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유산이 있는 장소에 집중하여, 가치속성 외 사람, 커뮤니티, 사회적, 경제적 맥락, 유산영향 요소 등을 발견하여,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유산혜택과 서비스의 방식을 마련하고자함
 - 유산기반의 장소적 접근이 만들어져야 관련하여 효과적 보전활용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봄
- 세계유산 현장 관리자에게 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툴킷은 세계유산 리더십 코스를 통해 20~30명에게 툴킷 작동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간되고 있음
 -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기본 방법이 있고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유산영향평가(개발사업)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음
 - 유산과 관련하여 행위자(관리자, 권리자, 원주민)와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도구와 세분화된 방식의 연구도 하고 있음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OM) 기관 협의 II]

4.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10:00~13:00
- 장 소 : 피렌체 대학교 건축학과
- 참석자 : Carlo Francini 책임자 및 HeRe_Lab 대표, Tatiana Rozochkina, Ippolito Valentina, Racano Lorenza(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 정유섬(통역), 심경미 연구위원·방보람 연구원(AURI)
- 내 용 : 피렌체 역사지구 관리계획 및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파악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공공영역 개선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모색

□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 및 HeRe_Lab 개요

-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는 유네스코 협약과 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파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피렌체 시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피렌체 역사지구의 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세계유산 관련 이니셔티브 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함
 - 2005년부터 사무소의 책임자이자 세계유산의 현장 관리자는 Carlo Francini이며, 2015년부터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동 연구소인 HeRe_Lab의 지원을 받고 있음
- HeRe_Lab(Heritage Research)은 피렌체 대학교와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에서 2015년에 설립한 공동 연구소임
 - 주로 세계유산 전문가, 건축가, 도시 계획가, 미술사학자, 경제학자, 지질학자 및 개발자로 구성된 학제적 팀¹⁾으로 구성되며, 여러 전공의 연구원 및 교수가 공동연구함¹⁾
 - 주로 법률 77/2006 “유네스코의 보호 아래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이탈리아 유적지와 문

1) 대학 및 지자체의 공동 과학 조직과 DIDA(건축학과), DISIA(통계, 정보 기술, 응용학과), SAGAS(역사, 고고학, 지리, 예술 및 공연 예술학과), DAGRI(농업, 환경 및 산림 과학 및 기술학과), DISEI(경제 및 경영학과) 등의 전공이 참여함

- 화, 경관 및 환경적 관심 요소의 보호와 향유를 위한 특별 조치”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음
-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과 피렌체 역사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피렌체 역사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 보존,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과 계획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

□ 피렌체 세계유산 관리 및 보전방식

- 피렌체 세계유산 지구는 최근 2022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승인을 받아 이행중임
 - 피렌체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관광, 보전, 교통 시스템과 대기오염, 아르노강 홍수, 거주인구 감소 등 5가지 주요 이슈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가지의 전략을 마련함
- 총 6단계에 걸쳐 30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음
 - 1단계 정부, 기관, 국제적 참여, 2단계 유산지식과 보전계획, 3단계 역사도심의 정주와 커뮤니티 향상, 4단계 관광시스템의 관리, 5단계 환경 및 기후 변화, 6단계 교통 시스템임
 - 예를 들어 4단계 관광시스템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관광객, 거주민 방문 수를 확인하고, 적정 방문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함
 - 모니터링을 하는데 계속 의견 제시, 연계방안 문의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어려우며, 결국 정부기관이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도시 내 유적 발굴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은 박물관 내 도시 관련 설명을 포함함
 - 피렌체 내에 많은 박물관이 있고, 효과적으로 유산을 설명하고 도시내 유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피렌체는 교통, 건축법에 의해서 지붕 자재, 색상 등이 실질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블리 지역 등의 경우, 과거 건물로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역사지구 내 지역주민은 세금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음
 - 피렌체 거주민은 자체적으로 세금이 낮지만, 지구 내 지역주민의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트램 관련해서 연말에 교통비를 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줌
 - 또한, 트램을 짓는 동안 트램 앞 가게들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피렌체 세계유산 사무소 관계자 만남]

5. 볼로냐 시청-도시혁신재단 Rock 프로젝트 관련 면담

-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10:00~13:00
- 장 소 : Fondazione Innovazione Urbana 사무실
- 참석자 : Leonardo pedeschi(Innovazione urbana 재단), Valentina disaro(볼로냐 시청), 정유섭(통역), 심경미 연구위원·방보람 연구원(AURI)
- 내 용 : 볼로냐의 Rock 프로젝트를 통한 볼로냐 공공장소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및 지역민 참여를 통한 Le Cinque Piazze 계획(로시니 광장 등) 등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

□ 도시혁신재단(Fondazione Innovazione Urbana) 개요

- 도시 혁신 재단(FIU)은 행정, 대학, 기업, 시민간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도시 변화에 대한 연구, 개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종합 기관임
 - 도시공간과 공공건축에 건축·도시설계,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이동성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와 실험, 혁신을 시도하고 문화 기반 도시재생, 도시문화 정책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함
 - 볼로냐 대학교, Acer Bologna, BolognaFiere 등 후원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월 초 쥘루스키니 재단, 빌라기니 재단, 도시교통혁신재단 등 3개 재단이 통합될 예정임²⁾
- 도시 혁신 재단(FIU)은 혁신에 기반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해 형평성, 접근성, 가치화 및 인식차이를 이해하고 공공 장소, 생태 및 기후 재생, 자연, 행정 및 사회 혁신, 디지털 민주주의, 사회 및 환경정의를 테마로 도시 변화와 혁신 과제를 수행함

도시혁신재단에서 수행한 실현 사례 (출처: Fondazione Innovazione Urbana)



시민의 가치로 장식된 “DORDEI” 정원(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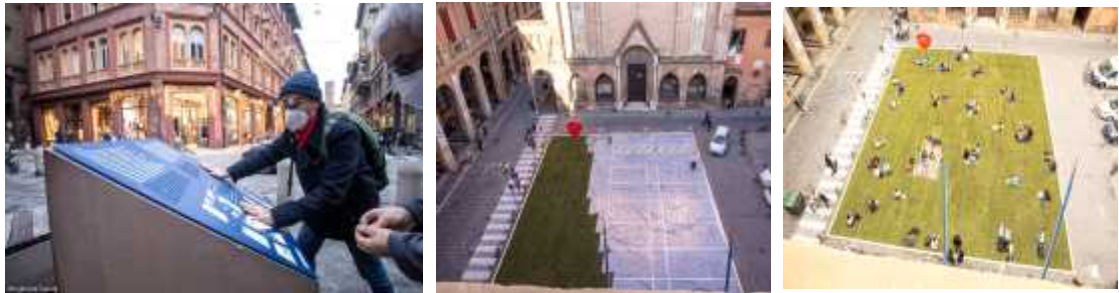


DELLE MOLINE을 통한 PIAZZETTA DELLE MOLINE(전/후)

2) 2024년 7월 8일 Innovazione urbana 재단은 Pietro Giacomo Rusconi 재단, Villa Ghigi 재단과 IU Rusconi Ghigi 재단으로 합병됨

□ 도시혁신 프로젝트 내용

- 볼로냐는 환경,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 역사유산 연계 등을 추진함
 - 볼로냐는 이탈리아 중심부라는 위치, 세계 최초 대학교라는 문화 교류 가치, 교통 등이 잘 되어 있는 환경, 시민친화적 제도, 넉넉한 예산 등이 장점이지만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와 높은 임대료 등의 주거문제 해결이 필요함
 - 관광객으로 교통이 불편해진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 트램 교통계획과 2035~2050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런던, 코펜하겐 건축스튜디오와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하였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마련함
- ROCK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결과물을 내면서 같이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볼로냐는 리더로 3~4년간 연구, 실험, 개발 등을 수행함
 - Rock 프로젝트 중 Le cinque piazze(5개의 광장) 프로젝트는 45억으로 대학간 연결과 가치를 창출하여 볼로냐의 정체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로, 볼로냐 단과대학을 연결하는 5개 광장은 학교, 단체, 시의 의견수렴(창구, 회의)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 대표적으로 로시니 광장에 잔디밭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전거를 배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였으며, 볼로냐 중심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듣거나, 애플리케이션 운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젝트도 있음



로시니 광장의 “5개의 광장(Le cinque piazze)”프로젝트



[볼로냐 시청-도시혁신재단 관계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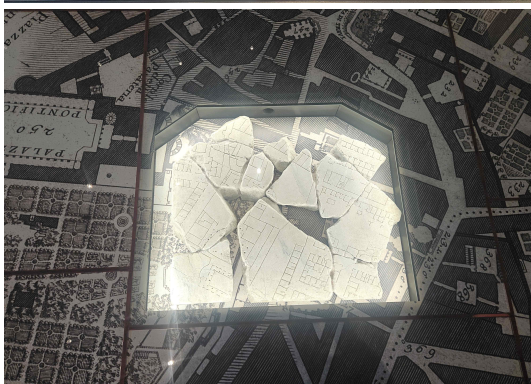
Ⅲ. 사례지 조사

1.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Museo della Forma Urbis)³⁾

□ 개요

-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Museo della Forma Urbis)은 고대 로마의 대리석 지도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과거 체육관 건물을 활용해 2024년 1월에 개관하였음
-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은 서기 203년~211년 로마제국의 성벽, 광장, 사원 등을 150개의 대리석 석판에 새긴 로마의 대규모 계획을 전시함
- 로마제국의 성벽·광장·사원 등을 표시한 지도가 새겨진 여러 장의 대리석 석판을 바닥에 로마 지도와 겹쳐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각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분량이 많고 단편적이어서 즉각적인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
- 석판 지도는 본래 카피톨리누스 박물관(Musei Capitolini)의 소장품이었으나, 현재는 다른 건축 및 장식 재료들과 함께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
- 박물관의 야외인 첼리오 고고학 공원(Parco Archeologico del Celio)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을 전시하여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과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현장사진



대리석 석판을 로마지도와 겹쳐 전시한 실내와 야외 유물전시

3) <https://www.turismoroma.it/it/luoghi/museo-della-forma-urbis>

2.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o Massimo)

□ 개요

-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아벤티노 언덕과 팔라티노 언덕 사이의 계곡에 위치한 고대 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전차 경기장(150,000명의 관중 수용)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공터만 남아있음
- 화재로 사라진 건축물을 증강 및 가상현실을 통해 복원하고, 로마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변화 모습을 넓은 야외공간에서의 VR을 통해 현실을 겹쳐서 보는 체험을 제공함
- 콘텐츠는 8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0분 동안 가상현실과 음성 안내로 진행되고, 가상현실 헤드셋을 대여하여 관람할 수 있음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방문 경로

- ① 경기장의 기원, ② 율리우스 카이사르~트라야누스 시대, ③ 제국주의시대, ④ 원형극장 좌석, ⑤ 티투스 개선문, ⑥ 타베르나(로마 상점 및 매점 시설), ⑦ 중세와 현대, ⑧ 경기장에서의 하루, ⑨ 전경

출처: 키르쿠스 막시무스 (<https://www.circomaximoexperience.it/en/>)



주요 위치별 가상현실(VR) 화면

□ 현장사진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는 관람객들

3. 콜로세움 고고학공원

□ 개요

-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은 콜로세움을 포함한 포로 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등 고대 로마 주요 유적을 포함하여 총 78ha에 이르는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음
 -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최대 7만명까지 수용 가능하였으며, 포로 로마노는 로마 주요 정부기관 건물들로 정치,경제의 중심유적지이며, 현재까지 발굴작업이 진행 중임
- 실제 공간 관람과 전시, 전망을 통해 효과적인 유적 이해 및 정보를 제공함
 - 콜로세움은 경기장 공간을 활용하여 실제 공간을 관람하고 축소 모형, 미디어, 세부적인 구조 등에 내용은 경기장 실내 공간에 전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움
 - 포로 로마노는 유적별 안내판과 가이드를 통해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팔라티노 언덕은 해당 유적의 전망대로 관람객이 조망하면서 로마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도시 성격과 유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현장사진



실제 공간 관람과 모형, 설명 등을 통해 설명하는 콜로세움 전시공간



팔라티노 언덕에서 내려다 본 포로 로마노



포로 로마노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

4. 산지미냐노 역사지구

□ 개요

- 산 지미냐노(San Gimignano)는 작은 성벽에 둘러싸인 중세도시로, 12개의 탑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세계유산 지구임
 - 산지미냐노는 로마를 왕래하는 순례자들이 거치는 프란치제나 길(Via Francigena)의 연결 지점으로, 이 도시를 지배했던 귀족 가문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약 72채의 탑을 세웠으며, 현재는 약 12개 성곽과 봉건 시대의 분위기와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 현재 문화부 및 피렌체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역사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용과 최첨단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스템, 회의 및 전시공간, 공연 및 숙박시설, 산책로 등 개발, 산 지미냐노 역사 중심지의 보호 및 장식 규정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산지미냐노는 지역 사회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민 연계 방안을 개발하고 소득창출방식 마련과 지역 관리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주변 농업 경관을 지원 및 존중하는 여러 계획을 개발함
 - 지역 관광협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주변 지자체 협력(11개 자치단체), 농업경관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 및 역사도시와 주변 경관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연례행사와 가이드 투어 등을 통해 활발한 관광개발을 추진함

□ 현장사진



탑의 도시 산지미냐노



광장에서 행사를 참여하는 관람객



산지미냐노 지역 로고



연례행사(퍼레이드, 음악공연),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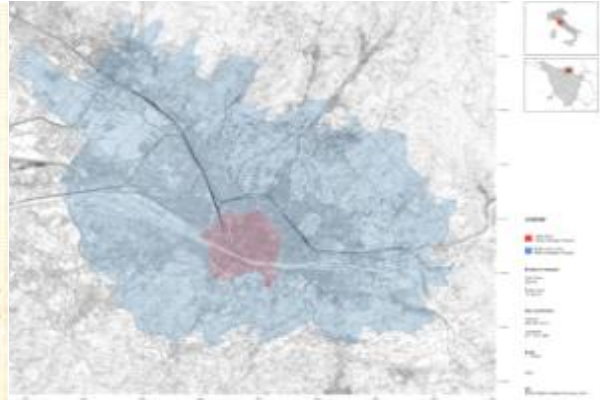
5. 피렌체 역사지구(Duomo di Firenze) 및 도시전시

□ 개요

- 피렌체 역사지구의 세계유산 지역은 532ha의 핵심 면적으로, 부지 경계는 14세기 초에 건설되어 19세기에 거의 완전히 파괴된 대로와 오래된 성벽을 따라 이어져 있음
- 피렌체 역사지구는 전체 10,240ha로, 유산구역은 14세기 성벽시스템에 해당하는 지역, 완충구역은 피렌체, 세스토 피오렌티노, 피에솔레, 바그노 아 리폴리 등 4개 지자체 영토 일부를 포함하며, 별도 데이터 재처리를 통해 설정됨
- 피렌체 세계유산 지역은 2005년부터 피렌체 자치단체 세계유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관리계획과 실행계획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 피렌체 시청 로비에서는 피렌체시의 과거 지도, 사진 등을 통해 역사지구 도시인식을 향상시키는 별도의 전시가 운영되어 있어, 방문객의 도시 이해를 높이고 있음



1835년 피렌체 도심 지도



피렌체 역사지구 구역경계

출처: <https://whc.unesco.org/en/canopy/florence-monitoring/>

□ 현장사진



피렌체 시청 내 피렌체 도시 전시 로비



피렌체 지도 및 과거 도시 사진 전시

6.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산 조반니 세례당(Battisteri di san Giovan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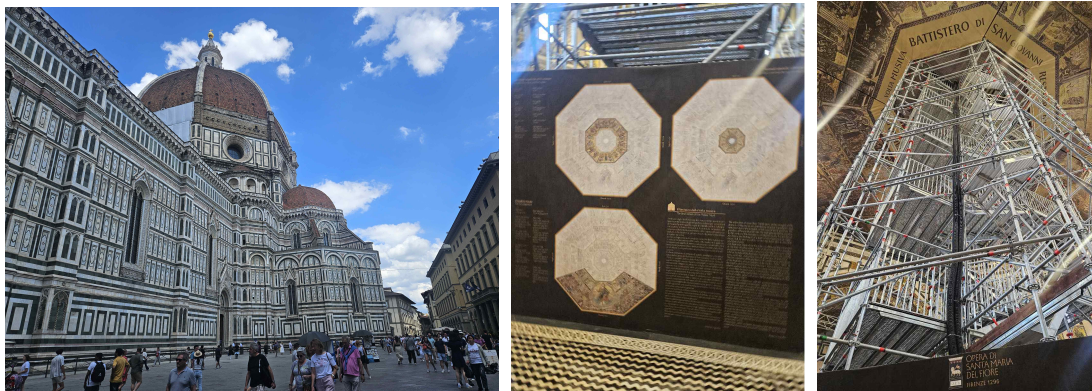
□ 개요

-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은 1296년에 공사가 시작돼 무려 17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세계에서 4번째로 크고, 돔의 크기(가로·세로 50m, 높이 90m)로는 제1성당인 바티칸보다 더 큰 성당임
-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관리 주체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인 ‘오페라 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재단’이 성당 완공 이후 700년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음.
-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을 제외하고 연계한 기념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페라 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재단 패스(브루넬리스키, 지오토, 기베르티)를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피렌체 시민은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무료 입장이 가능함

□ 오페라 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OPERA DI SANTA MARIA DEL FIOFRE) 재단

- 오페라 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는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단체로, 1926년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건축부터 관여하여, 1436년 성당이 완성된 후인 1500년대 재단으로 발전해, 약 700여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나 자치단체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기관임
- 주로 두오모 성당 보수 및 관리, 관광객 마케팅 사업 기획 등을 통해 한해 1500만 유로(한해 130만명 방문)의 수입을 통해 지자체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복원 업무 담당자가 15명, 감시·관리자가 50여 명 등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임
 - 재단은 주교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7명의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3년마다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명되고, 이 중 회장이 선출됨
 - 전체 유지 관리 및 보존 개입을 위한 기술 부문, 기록 보관소, 행정부문, 인사부문, 홍보부문, 프로모션 부문 등으로 조직이 구분되어 운영됨
- 성당의 탄생부터 시작해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어 두오모 성당의 설계나 운영 또는 보수진행을 꾸준히 해오고 있음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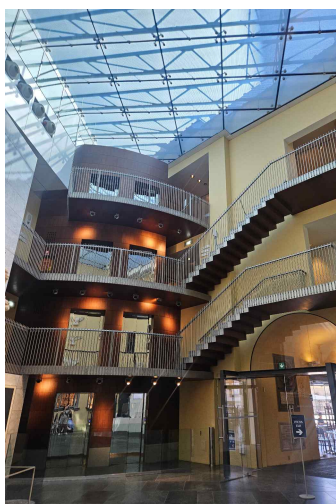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세례당 내 돔 수리 현장 및 안내판

7.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 (Museo dell'Opera del Duo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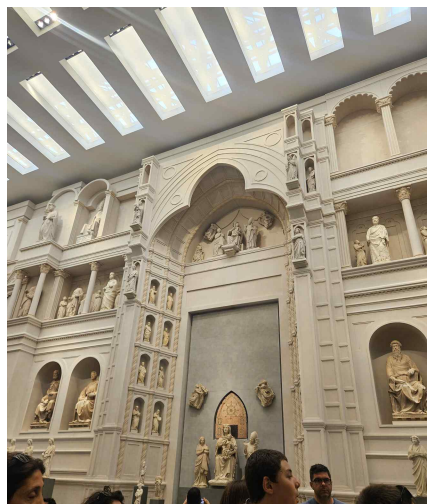
□ 개요

-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은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한 박물관임
 -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은 1296년 '오페라 델 두오모' (Opera del Duomo)라는 기관으로, 대성당의 건설을 담당하는 감독관과 예술가, 인부들이 사용하였고, 대성당이 완성된 1436년부터는 대성당, 종탑 등의 유지 보수를 맡는 곳으로 쓰였음
 - 1891년 박물관을 개관하여 건물 일부 공간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1998년~2000년까지 내부시설 현대화와 2009~2015년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재까지 28개의 방과 3개층으로 나누어진 박물관으로 활용됨
-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파사드와 주요 공간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함
 - 박물관 내부 Salone del Paradiso에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파사드를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메디치 대공의 의뢰에 따라 현대화하기 위해 디자인한 파사드에 대한 여러 디자인 모델을 7개의 나무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해 둠
 - 쿠플라 돔의 세부 모형과 건설현장 도구를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돔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한 교육용 미디어로 상영하고 있음
 - 대성당의 미완성된 외관 장식이나 칸토리아 등의 주요 부분을 전시하여, 공간적으로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을 이해하게 함
 - 그 외에도 성당 내 복장, 유물 등을 다른 공간에 전시하여 관람객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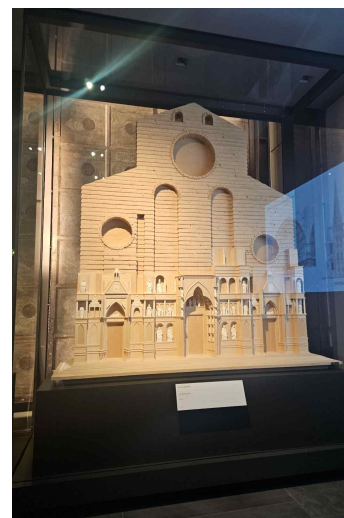
□ 현장사진



오페라 박물관 로비



대성당 파사드 조형물(1:1)



주요 파사드 전시



주요 구조부 모형



대성당 파사드 디자인



쿠플라 돔 모형



제작 관련 미디어 전시

8. 피렌체 그린웨이(Florence Greenway) : 보볼리 정원

□ 개요

- 피렌체 그린웨이(Florence Greenway)는 세계문화유산 '피렌체 역사 중심지' 남쪽 인근 울트라르노 지역에 위치한 20km의 문화 및 생태 여행 코스로 통합을 목적으로 함
 -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정원과 기념물, 그리고 두 개의 세계문화유산('피렌체 역사 중심지'와 '토스카나의 메디치 빌라 및 정원')을 통과함
 - 느린 관광, 지속 가능성, 녹색 도시 지역의 재발견 및 방문객의 웰빙을 중심으로 한 대안 경로를 제공하고 역사 중심지와 주변 경관, 외부 지역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



피렌체 그린웨이 안내사이트 및 경로
출처: <https://www.firenzegreenway.com/>

- 피렌체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대표 대상지인 보볼리 정원은 지역민의 접근성 개선 및 피렌체 다른 유적지와 연계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보볼리 정원은 16~17세기에 조성된 피티 궁전 내에 위치한 정원이며,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과 분수가 남아있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피렌체 그린웨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볼리 정원 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선과 화장실, 휴식공간 등을 개선중에 있음

□ 현장사진



통행로 정비, 화장실 건설, 주차장 정비 등 관람환경 개선 진행

9. 구 수녀원(Vecchio Conventino)의 창작 사무소(Officina Creativa)

□ 개요 : 수도원 건물을 예술문화 창작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 창작사무소(Officina Creativa Lab)는 피렌체의 Giano della Bella를 통해 위치한 다기능 및 다분야 공간으로, 장인, 디자이너, 학생 및 장인 정신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일하고 학습하여 독특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장소임
- 과거 카르멜 수도회에 의해 산타 테레사 수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피렌체에 건설된 마지막 수도원 단지였으나, 이를 활용하여, 카페 및 식당, 정원, 창작 사무소를 조성함
 - 산타 테레사 수도원은 군병원, 장인 작업장 및 예술가 스튜디오, 피난처와 은신처 등으로 활용되다가 2002년 피렌체시가 "Giovanni Michelucci Foundation"의 컨설팅을 통해 시작된 참여형 디자인 연구소를 출범시켜 현재의 창작사무소가 됨
 - Old Convent 단지는 2개층으로 30개의 스튜디오, 세라믹 가공을 위한 실험실, 이벤트를 4개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문화유산 복원가, 금세공 장인, 가방·소품 디자이너 등 예술가와 장인이 입주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합 행사에 참여하기도 함
 - 예술가, 장인별로 특색있는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4년 3월에는 투스카나주 예술 및 전통공예 센터(Artex)에서 창작 사무소 입주 작가를 포함한 피렌체 장인의 작업장을 시민들이 방문하고 체험하는 행사 개최함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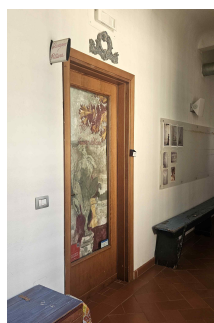
창작사무소 전경



카페 및 식당으로 활용되는 로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포스터, 전단지 공지



입주작가별로 다양한 작업실 입구

10. 트레 레 광장(PIAZZA TRE RE)

□ 개요 : 방치된 광장을 활력있는 공공공간으로 재생한 사례

- 트레 레 광장(Piazza dei Tre Re)은 피렌체에서 오래된 광장 중 하나였으나 오랫동안 방치됨
 - 트레 레 광장은 칼차이우 올리 거리(Via de' Calzaiuoli) 와 공화국 광장(Piazza della Repubblica) 사이에 위치해 있고,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광장임
- 방치된 광장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통해 광장을 청소하고 입찰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도시재생을 실시함
 - 세 개의 작은 골목에서 접근하면 일련의 나무와 매달린 랜턴 화분과 녹색 벽, 덩굴 식물의 수직정원 등을 구성하는 등의 공간 개선을 수행함
 - 또한 연극 공연, 독서, 도서 발표, 토크쇼, 단편 영화제 등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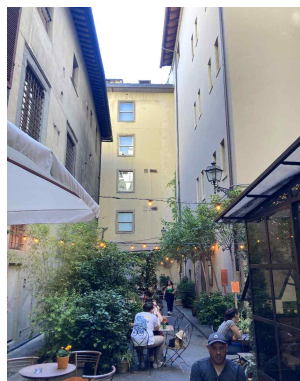
□ 현장사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광장



개선 전 방치되어 있던 광장



진입하는 골목 공간 개선



11. 오블레이트 도서관(Biblioteca delle Oblate)

□ 개요 : 오래된 공공건축물의 활용 사례

- 오블레이트 도서관은 14세기 수녀원이었던 곳으로, 1953년부터 2007년까지 피렌체 중앙 시립도서관이었던 도서관임
 - Oblate 건물 단지는 Folco Portinari가 1285년에서 1288년 사이에 설립한 피렌체 병원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녀원이자 음악원으로 활용된 바 있음
 - 기존 건물의 합병과 재사용으로 형성된 복합단지에는 여성과 남성 치료센터를 분류하였고, 14세기 안뜰과 15세기 중반 정원이라는 두 개의 주요 개방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됨
 - 1936년 피렌체 자치단체가 구입하여 1953년부터 베키오 궁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피렌체 중앙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두오모 광장 인근이자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이 다수 이용하며, 카페와 식당, 고생물학 연구소, 선사시대 박물관 등이 같은 건물에 있음
- 독서 모임 및 작가와의 만남, 사진 및 기록 전시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문화 모임이 적극적으로 개최되며, 테라스와 같은 야외공간도 사용가능함

□ 현장사진



시민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녀원의 중정, 테라스, 안뜰

12. 로시니 광장(Piazza Rossini)

□ 개요 : 볼로냐 Rock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

- 볼로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본고장으로, 대학 및 도시 중심부와 함께 살아있는 실험실로 변화시켜 문화유산 보존, 혁신 및 환경보호를 결합한 활동을 설계하고, 열린 공공 공간을 다시 연결하고 공유 및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ROC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일간의 행사인 Five Squares를 시작함
- 이 중 로시니 광장은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었으나, 수십 년 전 도시폭염의 원흉인 주차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U-Lab을 운영함
- 지역민 250명 이상이 참여 연구실 'U-Lab'에 참여하여 해당 방안을 모색하여, 로시니 광장에는 영구적인 녹지공간이 조성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구상하고 디자인한 임시 설치물은 2020년 여름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으며, 현재도 녹지공간과 자전거 정류소 등이 있어 학생들이 잘 활용하는 공간이 되었음

□ 현장사진



녹지공간과 자전거 정류소로 개선되어 있는 로시니 광장

13. 살라보르사 도서관(Biblioteca Salaborsa)

□ 개요: 유적 전시관이 함께 있는 공공도서관

- 살라보르사 도서관은 명문가 비스콘티 가문의 Palazzo d'Accursio 궁전(1277~1447), 식물원(1568~1765), 중앙우편물실과 물품거래소(1880~1926)였다가, 2001년부터는 볼로냐 시청 안에 위치한 주요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청건물 한가운데 위치하다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으며, 여러 문화행사, 강당, 음악실, 여러 모임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50여개 국가의 언어로 쓰여진 아동도서가 있고, 볼로냐 시민과 단체들이 이용가능한 토론 공간인 시민청이 위치에 있음
 - 볼로냐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이나 공간개선 등에 대해 도서관 통로 미디어 아트로 홍보, 안내하고 있고, 영화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짐

- 도서관 지하에 고고학 유적지가 있으며, 시민들이 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음
- 해당 건물은 기원전 189년에 지어진 고대도시 Bononia 유물과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유적 위에 건설되었으며, 도서관 방문객은 도서관 중앙 불투명 바닥을 통해 고고학 유적지를 볼 수 있으며, 지하층으로 접근하여 해당정보와 실제 유물을 관람할 수 있음

□ 현장개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시민소통 공간이 되는 시민청



주요 통로에 미디어로 유산 정보 제공



열린 열람실



1층 중앙 불투명 바닥으로 보이고 지하층에서 관람 가능한 고고학 유적

IV. 출장 효과 및 시사점

□ 기존 건물과 발굴된 유적 등을 전시·활용하는 다양한 방식 파악

- 로마 도미티아누스 경기장, 볼로냐 살라보르사 도서관과 같이,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에 대해 별도의 유적 전시 공간 마련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발굴된 고대 유적은 발굴된 고대 유적은 포르마 우르비스 박물관의 야외 공원 전시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존재하지 않은 공간(터)에 대해서는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VR체험 방식으로 실질적인 유적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처럼 문화유산의 주요 공간에 대한 축소모형과 관련 미디어, 연혁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유산 이해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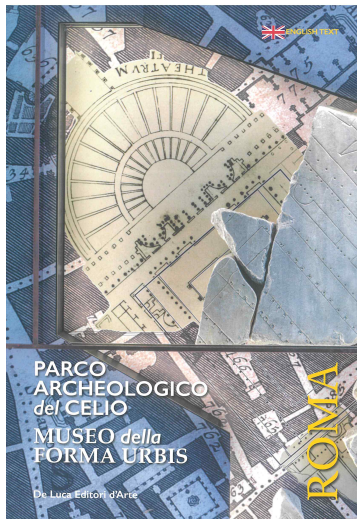
□ 문화유산 인근 거주민에 대한 혜택 및 환경 개선 방식에 대한 이해

- 피렌체 역사지구 내 지역주민의 세금 외 교통비 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이 보행통로 개선, 지역 활성화 등으로 유산과의 연계를 향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사지구 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함
- 산지미냐노 역사지구와 같이 관광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구체적 소득창출 방식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유산 관리에 대해 지자체와 별도 재단의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나갈수 있으며, 지역민을 포함한 민간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자발적 유산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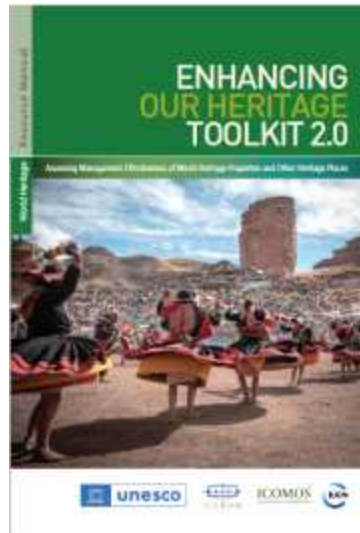
□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 대한 맥락을 이해한 보전 활용 필요

- 단일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함께 병행될 때, 유산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지므로 지역민과 방문객이 지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전시, 전망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산 보전과정에서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유산 관리와 절차 마련이 필요함

V. 취득자료



포르마 우르비스 책자



ICCROM 발간 툴킷



피렌체 세계유산 관리계획



볼로냐 도시혁신재단 소개 관련 발표자료